

30년간 ‘메세나’ 활동



Street of Summer 기획전 전경.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신세계, 지역 문화·예술 꽃 피웠다

미술제 개최·광주비엔날레 후원 등 우수 작가 발굴·미술 꿈나무 지원
9월 1일까지 신세계갤러리 30주년 기념 기획전…다제인 퍼포먼스도

광주신세계가 지역과의 상생을 목표로 기업이 문화·예술 등 분야를 지원하는 ‘메세나’ 활동을 지속하면서, 지역상생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로 지역 현자법인 30주년을 맞은 광주신세계는 지난 30년 동안 지역민들의 문화 수준 향상,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 백화점 내에 신세계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미술제 개최, 광주비엔날레 후원은 물론 지난 5월에는 ‘광주학생 미술대회’를 열어 지역의 미술 꿈나무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24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개점과 동시에 지난 30년 간 메세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메세나

는 범위를 확장해 기업 차원에서 문화·예술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진행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광주신세계는 이같은 확장된 메세나 활동을 통해 기업과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신세계의 대표적인 메세나 활동으로는 ‘신세계갤러리’ 운영을 꼽을 수 있다.

광주신세계 갤러리는 백화점 본관 1층에 위치해 고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모두 자유롭게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매월 새로운 전시를 기획·운영함으로써 지역민들의 문화 다양성도 고려했다.

특히 올해는 개점 30주년을 맞아 오는 9월 1일까지 스트리트 아트를 주제로 한 기획전 ‘Street of Summer’를 전시 중이다. 해당 기간에는 단순한 전시 뿐만 아니라 매주 금요일 1시간 가량 갤러리 내부에서 다제인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지역에 새로운 문화·예술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미술제를 통해 우리 지역의 신진 작가를 널리 알리고 있다. 광주신세계 미술제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작가를 발굴하고, 지역 미술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6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공모제다.

광주·전남에서 활동 중이거나 지역 출신의 작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지역의 초보 작가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등용문 역할을 맡고 있다.

광주신세계미술제는 지난해부터 지역 작가 지원에 중점을 두고 상금을 기존보다 500만원 늘렸고,

전시 지원금을 포함해 대상 총상금 2000만원, 신진 작가 총상금 1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금전적인 도움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이아남 작가 등 90여명의 지역 작가들이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광주비엔날레와 광주시립미술관 회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광주신세계는 지역 대표 국제 행사인 ‘광주비엔날레’가 시작된 1995년부터 매 행사마다 후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광주비엔날레에 후원한 누적금액은 20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1년부터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도 지원하고 있으며, 총 1억원을 후원했다.

지난해 광주신세계가 처음으로 개최한 ‘광주학생미술대전’ 역시 지역 문화·예술분야 후원의 한 축을 맡고 있다.

광주학생미술대전은 광주시립미술관회가 주관

하고, 광주신세계가 후원하는 행사로, 광주 소재 초·중·고교생의 미술 역량 강화 및 지역인재 양성 거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미술대전에서 선정된 지역 학생들의 수상작 60점은 지난 5월 광주시립미술관과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전시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광주신세계는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ESG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 한국ESG기준원이 실시한 ESG평가에서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종합등급 ‘A’를 획득했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광주신세계는 현자법인으로 개점 이후 지난 30년동안 지역 문화·예술계와 함께 성장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매개체 역할을 통해 지역 상생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소비쿠폰 제외’ 대형마트, 할인으로 고객 잡는다

수입맥주 5캔 9800원·와규 40%·한우 특가 할인 등

대형마트 ‘빅3’(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가 모두 무더위에 마트를 찾는 소비자를 잡기 위해 최대 반값 할인부터 증정,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 폭염 속 수박, 맥주 등 시원한 먹거리부터 제철 먹거리, 한우 등을 대폭 할인하면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손님 잡기’ 경쟁에 불이 붙은 모습이다.

우선 이마트는 오는 28일까지 제철 과일 및 여름 바캉스 필수품을 특별 할인하고, 각종 수입맥주를 골라 구매할 수 있는 ‘수입맥주 골라 담기’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행사 기간중 ‘한 입에 쏙 조각 수박·멜론·허니

듀’ 3종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000원 할인한다. 여름 휴가에서 피부보호를 위한 필수품인 ‘니베아 썬케어’도 전품목을 대상으로 2개 이상 구매 시 50%, ‘글라스락 아이스박스·아이스팩’ 전품목은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30% 할인한다.

‘수입맥주 골라 담기’ 행사에서는 하이네켄, 버드와이저, 코젤, 스텔라, 기네스, 산토리, 아사히 등 인기 수입맥주 100여종과 짐빔 하이볼 등을 포함해 5캔을 9800원에 골라 담아 구매할 수 있다.

롯데마트도 여름철 나들이족을 겨냥해 ‘떠나오 맛캉스’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와고메 와규 윗등심’을 옐로

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40% 할인하며, 각종 한우 부위들도 특가에 선보인다. 이 밖에 ‘큰 치킨’, ‘통족발’, ‘조밥’ 등도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30일까지 썸머 슈퍼세일 ‘홈플러스 NOW’의 마지막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에서는 여름 체절을 맞은 과일, 채소 등 신선식품과 여름 바캉스를 위한 델리 등 다양한 먹거리를 특가에 만나볼 수 있다.

또 ‘과일 전 품목’과 ‘수산 전 품목’을 신한·삼성 카드로 3만 5000원 이상 결제 시 3000원 상품권을 증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하는 ‘농산물 할인 지원 행사’를 통해 마이홈플러스 멤버트가 할인에 농할쿠폰 20%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GS25, 소용량 비타민·유산균 판매

건강기능식품 30여종

GS25는 “오는 8월 초 전국 5000여 점포에 종근당, 동화약품, 동아제약, RU21 등 제약사 및 건강식품 전문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30여종의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인 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새로 출시되는 건강기능식품들은 고객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의 주력 상품을 1주 또는 1개월 단위의 소용량 패키지로 구성하고, 5000원대의 부담 없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소비자 편의성을 위해 포장 단위를 줄였고, 기능별 라인업을 다양화했다. 이를 통해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소비를 이끌어 내 ‘편의점형 건강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GS25는 올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보다 98.6% 매출이 뛰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GS25가 최근 3개월 간 ‘나만의냉장고’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92%가 정기 또는 간헐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을 섭취하고 있으며, 향후 편의점 구매 의향도 91%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구매 이유로는 갑작스러운 피로와 컨디션 저하 시(39%), 매장에서 눈에 띄었을 때(33%), 약국·마트 영업 외 시간대(19%), 출장·여행 중(10%) 등 즉시성 및 근접성이 우수한 편의점의 소비 특징과 비슷했다.

GS25는 오는 9월에는 수입 프리미엄 제품과 국내 주요 제약사의 신상품도 추가할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소비쿠폰 풀리니 쌀도 편의점에서 산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편의점에서 쌀과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등 고객 수요가 적었던 품목들의 매출도 증가하는 등 소비가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23일 소비쿠폰 지급 직후 매출이 전월 동기 대비 증가했다.

특히 편의점에서 주로 구매하지 않는 쌀과 잡곡 등 양곡류도 소비쿠폰의 힘을 받아 매출이 증가했다. 편

의점별 신장률은 GS25(12.9%), CU(25.0%), 세븐일레븐(50.0%), 이마트24(94.0%) 등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매출은 이마트24가 86% 증가했고, 세븐일레븐(50.0%)과 CU(33.0%)도 늘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디케이 주식회사

공 기 의 새 로 운 정 의
공 간 을 빛 내 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삶.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



